

2015

---

## 박근혜 대통령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및 유네스코 방문  
체코 공식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





2015 박근혜 대통령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및  
UNESCO 방문  
체코 공식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2015.11.29. ~ 2015.12.05.







**PARIS20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CMP11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Conference of Parties 21

2015.11.30.  
프랑스 파리

“

지도자 여러분,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신(新)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 기조연설 中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 정상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신(新)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등참했다.

금번 기후변화 특별정상회의는 전세계 1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역대 최대의 정상회의이다.

먼저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新) 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新) 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세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금번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신(新) 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 경험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선도
  -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30년 100조원 신시장, 5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전 제시
  -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로서 위상 제고
-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
  - 페루의 에너지자립설 모델 설명, 앞으로도 스마트팜 등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  
·에너지자립설과 스마트팜 모델은 지난해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 GCF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앞장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
-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
  - 에너지 신산업 발전과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역할 강조



## 청정에너지 혁신미션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의 발전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 실행방안은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 개방적 협력체제를 통한 기술혁신
  - 국가간 협력,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의 창조적 연계와 통합
-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전통산업과 ICT를 접목한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교류 활성화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노력 강화
  - GCF와의 연계강화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개도국 확대



1 2 3 4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20151130



## 한·러시아 정상회담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극동·시베리아 지역내 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국빈방한 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정상은 201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그간의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간 연계성 증진 및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실질협력 방안,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했으며,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간 신뢰와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 2  
한·러시아 정상회담 | 20151130

## 파리 바타클랑극장 테러 현장 헌화

“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항상 프랑스와 함께 할 것입니다.

”



1 2  
파리 바타클랑 테러 현장 헌화 | 20151130

# 한국 공예·패션 디자인전 Korea Now 관람

“

올해가 한·불 교류의 해인데, 문화교류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 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문화의 지평을 넓혀서 앞으로도 문화교류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

11월 30일 마지막 일정으로 파리장식미술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개막한 <한국공예·패션디자인전 'Korea Now'>을 관람하고, 양국간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이뤄지는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문화교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의 문화 지평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전시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대규모로 전시되어 오늘의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리비에 가베(Olivier Gabet) 파리장식미술관장」의 인사와 안내로 전시관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은 패션전을 기획한 「임미선, 서영희 예술감독」으로부터 전시작품 해설을 들으며 자개 병풍, 뒷마루, 오색광물/옻칠을 활용해 만든 오방색의 조형물 등 다양한 공예전시물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입었던 한복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가베 관장」은 “전시회에 파리 테러 발생 전부터 많은 프랑스인들이 방문했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최근 테러 사태로 프랑스 국민들의 충격이 크셨을 텐데,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위로가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1 2 3 4 5  
한국 공예·패션 디자인전 Korea Now 관람 | 20151130



# 유네스코 방문 및 특별연설



1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70년간 유네스코의 활동과 한·유네스코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유네스코의 동반자로서 우리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 및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극단적 폭력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실천하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 교육분야

- '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 관련
- 보건 서비스 강화, 기초교육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자립도 제고를 위해 15개 개도국에 대해 2016-2020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총 2억불 지원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을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Education for Africa Rise(BEAR) 프로젝트
- 아프리카의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하는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향후 5년간(2016-2020) 2차 사업 추진
- ICT 활용 아프리카 교육혁신사업
- 2015-2017년간 6백만불 지원

## 과학분야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15개 개도국에 대해 2016-2020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2억불 지원
-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센터 설립
- 201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 후 대전에 설립 추진 중

## 문화분야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창의산업개발 사업
- 2015-2017년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3개국을 대상으로 문화창의산업 기반조성 연구(총 47만불 지원)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



2

박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외에도 「보코바 사무총장」과 접견 및 오찬을 갖고, 교육을 중시하고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유네스코는 상호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개발, 테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

금번 유네스코 방문 계기로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 협정' 및 '한국 외교부와 유네스코 간 자발적 기여에 관한 MOU'가 체결됨으로써 한·유네스코 동반자관계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창출됐다.



1 2 3 4

유네스코 방문 및 특별연설 | 20151201



## 체코 공식 방문

Czech Republic

2015.12.02. - 2015.12.04.



“

이제 양국은 지난 25년 간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 계기에 채택한 액션플랜에 담겨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이행해 나간다면 양국관계는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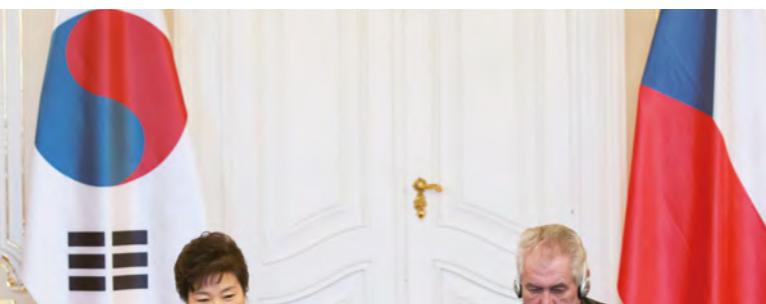


# 한·체코 정상회담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 체코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과학기술·ICT·보건의료·문화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18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기존 협력을 신 성장분야로 확대하여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체코 방문은 지난 25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성숙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 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2 3 4 5 6  
한·체코 정상회담 | 20151202



## 주요 분야별 성과

- 01. 체코 신규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 02. 보건의료·ICT·문화 등 유망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03. (체)기초과학-(한)응용과학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
- 04. 제조업 분야 민간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 체코 방문계기 MOU등 현황

## I. 원전 총 2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한·체코 원전 협력 MOU	한) 한국전력 체) SKODA PRAHA	신규원전, 운영 유지보수, 기술교류 등 협력을 통해 체코 원전시장 진출기반 마련
2. EU·APR EUR 인증지원 자문계약	한) 한국전력 체) SKODA PRAHA	EU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EUR 인증 취득을 위한 자문계약

## II. 신성장 분야 총 6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b>ICT</b>		
1. 한·체코 ICT 협력 MOU (정상 임석하 체결)	한) 미래부 체) 과학연구혁신부총리	포괄적 협력으로 체코 ICT시장 진출 기반마련 (SW, 디지털콘텐츠,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협력)
2. 코딩교육 협력 MOU	한) SKT 체) Bender Robotics 체) Corinth 체) Corinth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솔루션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코딩교육 콘텐츠 유럽수출 확대
<b>문화</b>		
1. 한·체코 창조산업 협력 MOU (정상 임석하 체결)	한) 문화부 체) 문화부	음악, 오페라, 연극, 애니메이션, 영화, 문학 등의 문화산업 공동육성
2. 체코 국립미술관 한국실 개설 MOU	한) 국립중앙박물관 체) 국립미술관	체코 국립미술관 내 한국실 설치 등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MOU 체결예정

## 보건의료

1. 한·체코 보건의료 MOU (정상 임석하 체결)	한) 보건복지부 체) 보건부	보건의료 분야 포괄적 MOU를 통해 체코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
2. 한·체코 의료기기 협력 MOU	한) 의료기기 협동조합 체) 의료기기 협회	의료기기 협력을 통한 체코시장 진출확대

## III. 과학 기술 협력 총 8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한·체코 기술혁신 파트너쉽 MOU (정상 임석하 체결)	한) 산업통상자원부 체) 산업통상부	산업기술 공동 R&D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진출지원 및 기술 경쟁력 확보
2.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	한) 산업기술진흥원(KIAT) 체) 기술청(TACR)	
3.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	한)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체) 기술청(TACR)	공동 R&D사업 추진 등을 통한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동유럽시장 진출 기반마련
4. 한·체코 연구기관간 기술경쟁력 및 산업교류 강화 MOU	한) 전자부품연구원 체) 물리학연구소, 광전자연구소	상호 기술교류 등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5. 한·체코 대학간 교류협력 MOU	한) KAIST 체) Charles University	과학기술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및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
6. 한·체코 과학기술 R&D 인력교류 협력 MOU	한) 과학기술연구원(KIST) 체) Charles University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7. 한·체코 학생방 해독제 R&D 협력 MOU	한) 학부연구원 체) 국방대 등 3개대학	기술경쟁력을 갖춘 체코와의 인력·기술개발 협력으로 학생방 해독제 기술력 제고 및 공동개발 추진
8. 한·체코 첨단연구장비 개발협력 MOU	한) 기초자원연구원 체) 과학장비연구원	광학분석장비 공동 연구개발,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IV. 민간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총 2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한·체코 기계산업 협력 MOU	한) 기계산업진흥회, KOTRA 체) 기계산업협회	기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지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2. 한·체코 산업교류 협력 MOU	한) KOTRA 체) 산업연합회(SP)	한국 기업들에게 SP 회원사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체코 시장진출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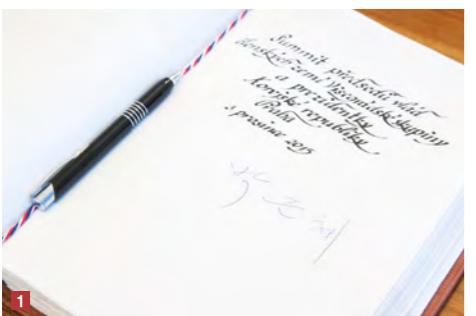
# 체코 총리와의 회담 및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두 정상은 지난 2월 「소보트카 총리」방한시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이행을 위한 <2016-2018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에는 △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관광 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취한 구체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 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또, 양국 정상은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점에 만족을 표하면서 원자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 추진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코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우리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이후 오찬을 겸들인 후속협의를 통해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유럽정세 및 △기후변화·테러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가 우리의 대북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 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 통일 노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소보트카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 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이행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진전을 위한 구체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 2 3 4 5

체코 총리와의 회담 및 오찬 | 20151203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이 손을 잡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신세계의 문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프라하성에서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밀로шу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대표 기업인 200여명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포럼이 개최된 프라하성은 대통령 공식관저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제만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함께 온 경제사절단을 환대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장소이다.

박 대통령은 이 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에 맞춰 3가지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



01. 협력 다변화 등을 통한 무역·투자 확대

02. 산업과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술협력 강화

03. 전통적 문화강국간 문화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한편,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1:1 상담회>가 병행 개최되었다. 앞서 COP21 계기에 파리에서 개최된 1:1 상담회(11.30)와 체코 상담회(12.2)에 우리기업 45 개사와 바이어 141개사가 참여해 24건 4900만불(약 560억원)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이 유럽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 2 3 4 5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20151202





## 한·체코 인형극·아리랑 공연

“

양국의 창작자들이 만나서 더 좋은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문화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체코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국립인형극장>을 방문해 한국과 체코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인형극 ‘다락에서’를 관람했다. 동 공연은 한국의 전통 판소리 ‘수궁가’와 체코의 전통인형극 ‘마리오네트’가 결합된 작품이다. 인형극 공연 시작 전에는 <국립체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원>이 협연한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와 한국의 ‘아리랑’이 연주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스토리와 체코의 인형극이 만나서 창의적인 공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양국이 힘을 합하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창조 잠재력이 참 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양국의 전통과 강점을 결합시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문화로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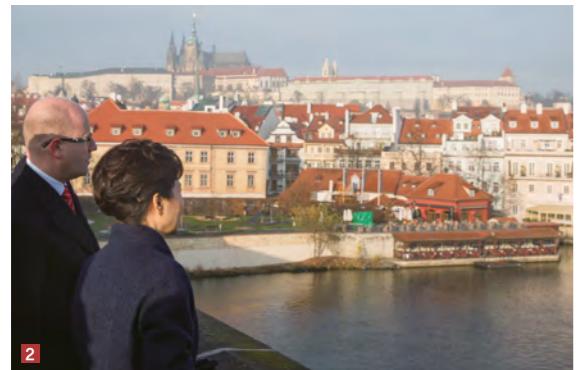
5



4

1 2 3 4 5  
한·체코 인형극·아리랑 공연 | 20151202

## 찰스다리 시찰



박근혜 대통령은 구시가지쪽 다리 입구에서 바라보는 프라하성의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프라하의 대표 관광명소 찰스다리를 시찰했다. 동일정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체코 측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로부터 다리에 대한 유래와 특징에 대해 들으며 다리 중간으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바로크 양식 30개 성자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 얀 네포무크' 신부 동상 앞에 멈춰서 이성자상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또, 박 대통령은 구(舊) 시가지를 바라보며 문화재 보존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1 2 3 4  
찰스다리 시찰 | 20151204



## 체코 동포 대표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대표 15명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우리 동포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 동포사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인음악봉사단 위문공연, 체코 현지인들과의 체육대회 개최 등 다른 동포사회에 귀감이 되는 여러 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상생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최춘정 재체코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부유럽의 꽃인 프라하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교민사회 차원에서 환영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 동포사회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동포정책을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책을 적극 알리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1 2 3  
체코 동포 대표 접견 | 20151204

# K-POP 공연

박근혜 대통령인 체코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체코에서 최초로 개최된 K팝 공연장을 찾아, 중유럽 지역에서의 한류 확산을 지원했다.

이번 공연은 비세그라드 회원국의 한류 팬클럽이 1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코에서는 K팝 공연이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한·비세그라드(V4)간 정상 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 날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장 주변을 가득 채운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온 한류 팬들은 「샤이니」, 「레드벨벳」 등 K팝 스타의 공연과 「팝핀 현준」의 댄스, 「연희단꼭두쇠」의 사물놀이와 사자춤 등 역동적이고, 다양한 한국문화를 볼 때마다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연을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4개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젊은이들과 문화로 소통해 가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음악을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앞으로 체코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양국의 앞날을 더욱 밝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 2 3 4 5  
K-pop 공연 | 20151204



##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2015.12.03.

“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은 25년 전 각각 국교를 수립한 후,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다방면에서 꾸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4개국 총리님들과 함께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 정상들은 미래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한·비세그라드 공동기자회견 中

# 한·비세그라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ICT,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세그라드 그룹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인프라 등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의 4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협력체로, 성공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며, EU내 우리 의 2대 교역대상이자, 3대 투자시장이다. 또, V4 국가들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이나 배출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비세그라드간 협력의 방향을 △통합과 통일, △공동번영, △문화융성, △글로벌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설정하고, 다양한 구상들을 제안함으로써, 양측 간 다종적·다면적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5개국 정상들은 향후 협력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과 공동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모멘텀을 앞으로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측 간 다양한 차원의 대화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 분야별 성과

01. 50조원 규모의 V4 인프라 시장 참여 발판 마련
02. 과학기술, 문화·중소기업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03. 한·V4간 무역·투자 확대 공동 노력에 합의
04. 기후변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제 공조 강화

이번에 처음 개최된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역 국가 그룹간 다자 협력의 지평을 ASEAN에 이어 중유럽 지역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V4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中 경제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인프라 인프라 에너지	교통 및 인프라 협력을 위한 韩·V4 인프라 고위급 회의 설립을 검토 에너지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 협력 Dialogue 구성을 검토
과학기술 창조 경제	과학기술·R&D·혁신 등의 분야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한·V4간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
중소기업 문화	중소기업 협력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Best Practice를 공유 음악, 오페라, 극단,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회화, 전시 등의 문화창조 산업을 공동 육성
한·EU FTA 무역 투자	양측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한·EU FTA를 통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
국제 공조 기후변화	V4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교통, 물류,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 신(新) 기후체제 성공과 GCF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

# 한·비세그라드 공동기자회견



“

비세그라드 그룹 소속 국가들은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협력은 성공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부분의 수치가 이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

빅토르 오르반 | 헝가리 총리

“

오늘 제1차 한·비세그라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는 V4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전환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강의 기적 경험을 전수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기에 본 회의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로베르트 피쏘 | 슬로바키아 총리

“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서 다양한 실질적 협력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주기적으로 V4·한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례화를 통해서 향후 협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

보하슬라프 소보트카 | 체코 총리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협력이 지역적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베아타 쉬드워 | 폴란드 총리

#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베아타 쉬드워(Beata Szydło) 폴란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로베르트 피쏘(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각각 별도의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폴란드

## 경제 협력

「쉬드워 총리」는 폴란드는 신기술, 재산업화, 신시장개척 등 경제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상징적 나라로 한국을 모델로 경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 인프라

박 대통령이 폴란드의 철도, 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자, 「쉬드워 총리」는 양국은 인프라, 혁신분야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 협력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

## 과학기술

박 대통령이 폴란드의 기초과학과 한국의 첨단 응용기술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하자, 「쉬드워 총리」는 자신도 한국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폴란드인들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함



## 경제 협력

「오르반 총리」는 양국관계는 80년대 후반 이후 특별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 지속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박 대통령은 헝가리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실용화 기술을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상생협력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특히 IT, 자동차부품,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
- 이에 대해 오르반 총리는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한다며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화답

## 인프라

박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가 추진중인 지하철 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중소기업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금융 MOU가 체결되고, 지난 4월 민관 경제사절단이 헝가리에 방문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오르반 총리」는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주문



슬로바키아

## 경제 협력

박 대통령은 양국간 호혜적 협력확대를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과 경제공동위 신설을 제안

- 이에 「피쏘 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경제공동위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과학기술분야에서 EU 펀드를 지원받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이 펀드를 활용한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 인프라

「피쏘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현재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인천공항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

-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우리 기업들에게 전달하여 상호 원활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원전

「피쏘 총리」는 슬로바키아는 원전건설 관련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원전협력 문제를 내년 상반기 개최될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해가자고 제의

-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원전건설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 경제성, 성실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UAE 원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며 향후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긴밀히 협력해가자고 제안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 20151203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기조연설문



의장님 그리고 각국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2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 첫째,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약  
심한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는데,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produce + consumer) 시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 공장들은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모두 바꿔나  
갈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100% 보급해서 Carbon free island로 전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INDC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초 GCF 이사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도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도 개도국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 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GCF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입니다.

### 셋째,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 유네스코 특별 연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유네스코 창설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곳 유네스코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보코바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곳을 방문하면서 유네스코가 걸어온 지난 70년과 함께,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물리적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고민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유네스코의 창설이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

유네스코 현장에 새겨진 이 메시지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유네스코 창시자들의 외침이자, 오늘날 분쟁과 갈등의 현장을 살고 있는 세계 인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왔고, 지구촌 곳곳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캠페인과 세계교육포럼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생물권 사업을 비롯한 과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인류공동의 유산 보호와 문화적 창의성을 창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창설 초기, 신생국 문자해득(文解, literacy) 제고와 문화유산 복원에 중점을 두었던 유네스코의 활동 영역은 이제 정보격차, 사회변동, 생명윤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지적 인프라 전반을 강화하는 포괄적인(inclusive) 국제기구로 성장하여, 우리의 마음에 더욱 단단한 평화의 방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유네스코가 창설되었던 1945년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곧 이은 6.25 전쟁은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유네스코는 1951년 교과서 공장을 건립하여 교과서 출판을 지원했고, 교육재건 방안을 작성하여 한국이 교육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는 농촌 지도자 양성시설 건립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초기 지원은 한국이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유네스코의 활동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힘쳐질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교육, 과학, 문화가 한국 발전의 촉이 됐다는 점에서, 지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시켜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비전이 올바른 방향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현장에 담긴 “평화의 방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이상도, 대한민국의 꿈도,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70년 분단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 긴장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70년 전의 출발점에 다시 서서, 여전히 인류의 중대한 과제인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차 대전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들간 대규모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이 곳 파리에서 발생했던 테러가 보여 준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극

단적 폭력행위와 지역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으로 확산 중인 폭력적 극단주의는 대량난민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불관용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종교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신 보코바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녀에게 장래의 꿈을 물었더니, 테러리스트가 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동 각지의 난민 캠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종칼과 복수만 생각한다면,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일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향후 15년간의 세계교육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꾼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폭력적 극단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 청년일자리 부족,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 같은 문제가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러한 인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정 국가가 야기하는 지역 불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의 과제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풀어내고자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이 환경·민생·문화 3대 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의 통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과 남북 역사학자들의 의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이 7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남북 공동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간다면 보다 큰 교류와 협력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세계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제70차 유엔총회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5년 간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이뤄갈 이 청사진에 교육, 과학, 문화 분야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세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먼저,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교육 분야의 협력입니다. 한국은 교육이 평화 구축과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토대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경제성장 초기의 초등교육 보편화

와 중화학공업 성장기의 중등교육 확대,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진입 시기의 고등교육 강화 추진 등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보건·역량개발을 위한 "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할 이 이니셔티브는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5개 국가들의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원 대상국을 10개국으로 늘리고, 5년 동안 1천만불 이상의 규모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강점 분야인 ICT 기술을 활용해서, 올해부터 3년간 아프리카 3개국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600만불 규모의 유네스코 신탁사업도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유네스코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아이해교육원'을 통해 개도국들의 현실을 반영한 세계시민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들을 공유·전파하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네스코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과학기술 교육에 힘을 쏟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기초·응용과학 연구시설 설치로 투자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민간 기술개발 유도와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내년부터 5년간 15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컨설팅,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STI for Better Life)'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받고, 개도국 기업들이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이며,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생명의 위

기'로 대두되고 있는 물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우리의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개도국 대상 수자원 교육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에서도 한국은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적 다양성이야 말로 인간의 창의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정부는 창의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ICT를 비롯한 다른 산업과 융합하고,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로 앞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융합문화의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지구촌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앞으로 3년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3개국에서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등 세계기록유산제도 발전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기록유산 제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네스코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위대한 역사의 진전을 이뤄왔지만,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제사회는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마음을 모아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육·과학·문화 증진을 통해 길러지는 인재들은 보다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국제사회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유네스코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유네스코의 송고한 여정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이행을 위한 2016-2018년 행동계획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양측”)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보호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가 2015년 2월 서울에서 선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기하며, 2016-18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술한 행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채택코자 한다.

## 정부·안보 협력

- 양측은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정치 대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체코공화국 외교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양측은 양자 방문 및 다자들을 활용하여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외교차관/차관보급 또는 여타 고위 관리급 정책 협의를 강화한다.
- 양측은 의원친선협회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회 협력 및 교류의 강화를 장려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코공화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간 체결된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고위 관리를 포함, 다양한 차원의 인사 교류를 통해 국방 협력을 발전시킨다.
- 양측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체코공화국 국방부간 체결된 방산군수 분야 양해각서에서 합의한대로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다.
- 유관 정부기관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국제 사이버스페이스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접촉 및 협력을 수립한다.
- 양측은 대한민국·비세그라드그룹 틀내 협력 심화를 증진시키고 지지한다.
- 양측은 체제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경제 협력

- 양측은 공동의 이해 분야, 기업간 협력, 거시경제정책 및 동향과 관련한 대화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교역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관련 정부부처,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간 정기적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 양측은 2014년 6월 14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체결한 에너지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기존의 관련 틀을 활용하여 원자력 분야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 문화·관광 협력 및 인적 교류

- 양측은 자동차 산업, 기계 및 엔지니어링, ICT분야를 포함한 양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장려하며, 양국간 민간 협력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
- 양측은 과학, 기술, 창조 경제와 혁신 분야의 협력 활동의 장으로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를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또한, 양측은 R&D 포럼 개최 가능성을 포함하여 ICT 분야의 R&D 및 혁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체코의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실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 양측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간 체결한 양해각서 상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된 혁신 기업 지원과 발전, 필수 기술, 우주 관련 장치 및 기술, 스마트 기술 및 녹색 기술에 중점을 둔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 혁신 관련 협력을 심화한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코공화국 기술청(TACR)은 친환경 자동차, 자동차 부품,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국간 R&D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적 협력은 또한 응용 연구 및 혁신 지원과 관련된 정보, 노하우와 모범 사례에 대한 교환을 포함한다.
- 양측은 철도, 도로 인프라, 물류, 지능형교통시스템과 같은 연계성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한·체코 인프라 및 교통 분야의 회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도 또한 논의될 수 있다.
- 양자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및 이중과세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양측은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추세를 인정하며, 문화 행사를 상호 개최하고 양국간 관광을 장려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 양측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능성들과 같은 관련 틀을 활용한 청년 이동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

2015년 12월 3일, 프라하에서 채택. 끝.

#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 공동성명



2015년 12월 3일, 체코 공화국, 프라하

대한민국 대통령과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는 2015년 12월 3일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를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참가국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공화국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공화국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로 대표되었다.

## 대한민국·비세그라드 그룹간 협력

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선정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함을 인식하면서, 참가국들간 상호 수교 아래 정치·경제·문화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그간의 실질적 진전을 토대로 양측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유럽연합과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이러한 포괄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점차 증대되는 공동의 정치·안보 의제의 수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양측간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확 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5.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이 서발칸 국가들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내 다수의 의미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재정적 기여를 한 데 평가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에 서발칸 기금의 창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외교관계 수립 아래 경제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어왔음을 환영하였다.

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틀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교역 및 투자의 지속 가능한 증가와 발전을 증진키로 하였다.

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R&D,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창조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고려하였고, 이와 관련 한·비세그라드 그룹 다자 공동연구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호혜적인 방향으로 양측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세계적·지역적인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의 기회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유럽내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철도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포함한 교통 및 인프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인프라 고위급 회의'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소기업들을 강화하는 모범 관행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 강화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1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음악, 오페라,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및 전시를 포함한 창조 산업에서의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간 경제관계의 중요 요소인 관광 분야 협력(2018년 동계올림픽, 관광부처간 협력 등)을 상호 이익을 위해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표명하였다.

## 지역 및 국제 정세

1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의 지역 및 도시간 국제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양자, 지역 및 한·유럽연합협력 차원에서 기존에 수립된 관련 제도와 틀을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행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한·유럽연합간 협력하의 청소년 이동성을 더욱 증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은 2016년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서울) 관련 대한민국의 제안을 평가하였다.
2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각국의 교육 정책상 특징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2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2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지지하였다.
2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0년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합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2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동북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및 번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8.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29. 비세그라드 그룹은 역내 연계성 향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유라시아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지하였고, 복합 교통·물류, ICT 네트워크 및 한국이 제안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3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블라디미르 펠로셴코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여타 동부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대한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대한민국은 또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진전에 중요한 조치로서 2015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에 주목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스크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2014년 3월 2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및 정전이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3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재의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도적 고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주자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 정치적인 측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분쟁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상황, 특히 ISIL의 활동 및 시리아 분쟁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상황에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지역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엔(UN), 아시아·유럽회의(ASEM),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별 파트너십 및 협력 프로그램,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3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조직범죄, 테러 척결, 사이버 안보, 이주 및 난민 위기, 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인권 증진을 포함한 전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 강화 목표를 인정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터키, 이집트, 프랑스, 말리 및 레바논에서의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최근의 테러 공격들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테러 척결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새로운 기후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성공을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새로운 기후재원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3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챕터를 환영하였으며, 동 의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강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

2015 박근혜 대통령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및  
UNESCO 방문

체코 공식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발행일 2015.12.



2015

---

박근혜 대통령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및 유네스코 방문  
체코 공식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